

새농촌건설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유 양 종(전농, 강원 영월군 농민회장)

지난 해 영월군농민회 총회가 끝나고 회원농민 한 분과 새농촌건설운동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 회원은 새농촌건설운동이 필생의 과업이라도 되는 듯이 자못 비장하기까지 결의를 내비쳤다. 다시 몇 달이 지났다. 몇몇 마을에서 새농촌건설운동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농민회 간부도 참여하고 있었다. 착잡했다.

다른 군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별로 다르지 않았다. 농민운동의 핵심간부라 할 수 있는 활동가까지 새농촌건설운동에 휘말리고 있었다. 휘말린다는 표현은 그 활동가가 새농촌건설운동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온 마을 주민이 나서니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끼어 들어 농민운동을 하면서 갈고 닦은 능력을 새농촌건설운동에 보태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네 사람들이 다 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럼! 동네 사람이 다 관광가면 같이 관광 가야지. 그런데 새농촌건설운동이 뭐냐?”

“글세,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봐야 할 지.”

새농촌건설운동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은 강원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새농촌건설운동의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강 이런 것이구나 알 수 있다. 문제는 실제 새농촌에서 살아야 할 농민과 농촌주민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 글은 새농촌건설운동을 어떤 기준에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시작으로 준비된 것이다. 편파적일 것이 분명한 이 글을 비판해주고 새농촌건설운동을 보는 시각을 넓혀주는 것이 이 글을 읽는 사람의 몫이다.

새농촌건설운동에 대해 쓰기에 앞서 거칠게나마 농업 및 농촌운동에 대해 몇 자 적고자 한다. 농업, 농촌과 관련된 운동으로 대표적인 것이 농민운동이다. 그 외에도 농업운동, 농촌운동이 있다. 서로의 경계도 모호하고 다른 부분을 도외시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농업운동은 산업으로써의 농업의 지위를 강화하고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의 이해 당사자들이 벌이는 조직적, 계획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세기의 식량증산운동이 농업운동의 대표적인 예로써 주로 정부의 정책수단에 따른 것이다. 요즘 각광을 받는 친환경농업은 일부 농민에 의해 시작되고 뒤에 정부정책으로 채택된 것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의 농업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설득력을 가질 때 전면적인 농업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농촌운동은 도시에 대하여 열악한 농촌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에서 전개하는 활동이다. 대표적인 예가 과거의 새마을 운동이고 지금의 새농촌건설운동이다. 새마을 운동 이전의 농촌운동은 일제 하, 그리고 해방 이후에 자생적으로 추진된 예가 있지만 민족해방 등의 과제를 받아 안는 순간부터 지배세력의 탄압을 받았고 새마을 운동이 정부의 정책수단이 된 이후 제대로 된 농촌운동은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자율성을 상실함으로써 거의 사라졌다.

농민운동은 그 과제로 모두를 포함하지만 주체로써 농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권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농민운동은 지난 수세기에 걸쳐 지배세력에 대항하여 민족의 당연한 과제를 농민운동 안에 담아내고 해결하면서 지금도 줄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농민운동은 농업운동을 및 농촌운동을 포괄하지 못하고 운동의 범위를 좁히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농업운동은 다분히 산업으로써 농업을 재편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촌운동은 농촌이라는 지역을 주민의 지향과 이해를 반영하여 바꿔내려는 것이고 농민운동은 사람을 중심으로 계급적 이해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다. 각각의 운동이 그 과제를 공유하지만 해결 방법이나 목표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입장의 상이함으로 인해 쉽게 공유되지도 못하고 있다.

이제 새농촌건설운동의 예로써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용호리, 초록마을(용호리)의 현황을 살펴보자.

용호리는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에 위치한 마을로 앞으로는 파로호를 끼고 있고 뒤로는 용화산 자락에 위치한 자연부락으로 총 549ha 면적 중 농경지 90ha, 임야 411ha를 차지하고 있고, 48가구 150명의 주민 중 민박, 낚시터, 가게를 하는 8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초록마을이란 생활과 농산물 생산 활동이 자연생태계와 조화를 이루고 마을의 자연자원을 적절히 사용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고 전통의 생활양식과 생산방식을 현대에 맞게 응용하여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생태마을의 또 다른 이름이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 교통, 주택 문제와, 농촌이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인식하여 도시와 농촌의 문제를 하나로 보고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가고자 하는 것이 초록마을이 지향하는 바이다.

용호리 주민들은 유기농업으로 생산방식을 전환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청정한 주변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변 동·식물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생활양식으로 전환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자원을 재이용, 재사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강원도가 주관한 '새농촌건설운동' 공모를 계기로 용호리는 생태마을 특성화 계획을 세우는 한편 농촌관광을 접목하게 되었다. 2000년 5월부터 이장(里長)을 중심으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자문단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최우수마을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3년 간 5억 원의 마을발전기금을 지원 받게 되었다.

지원금으로 친환경적(전통한옥) 마을회관을 신축 중에 있으며, 마을장학 기금 2억 5천만 원을 조성하였고, 마을의 장기발전 세부 계획들을 수립하였다. 구(舊)마을회관은 정보센터로 개조하였으며, 마을 홈페이지(www.yongho.org)와 안내팸플렛을 제작하여 농산물 직거래, 도·농교류, 관광객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

도·농교류 프로그램으로는 도시민 초청 산나물 채취대회 개최, 체험농장 운영, 농가 도시민 100가정 알기 추진, 사이버 주민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마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홈페이지 관리와 관광객 유치는 전문회사를 선정하여 제휴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소득원 개발을 위해 마을단위로는 처음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한 직거래를 시도하고 있으며, 유정란, 오이피클, 토종꿀, 건고추, 콩 등 농산물 판매를 위한 포장디자인 개발, 유기농산물의 우수성과 품질보증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품질인증을 추진하여 현재 마을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일부가 국립농산물 강원지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획득하였다.

그밖에 현재 5가구가 농가민박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박, 낚시, 식당, 농업, 관광을 패키지로 묶는 테마여행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초록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발생된 문제는 규모의 문제였다. 우선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꿀, 건고추 등의 특산물을 대상으로 전화주문을 받아 팔아 오던 중 국내에서 최초로 마을단위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하여 언론사에 소개되면서 상품 주문이 쇄도하여 토종 꿀, 고추 등은 수확한 해 연말에 모두 매진되었고 또한 택배가 가능한 특산물 이외의 일반 농산물은 마을에서 생산하는 생산량이 많지 않아 마을단위로는 유통할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났다.

두 번 째로는 용화산과 파로호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패키지 관광상품을 준비하여 홈페이지 상에서 소개하고 있지만 다양하지 못하고 단체관광의 경우도 너무 한정된 지역에 관광자원이 몰려 있어 지루해 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러한 공간적인 제약과 자원의 한계는 지속적인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걸림돌로 작용되었으며 장기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인근 신대리 마을과 2001년 4월 자매결연을 맺어 상이한 자원을 가진 두 마을이 상호·보완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또한 빈약한 관광자원과 숙박시설을 보완 할 수 있는 관광농원을 참여시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대리, 관광농원 홈페이지를 제작 용호리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초록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농촌관광에 있어 가장 핵심인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은 농촌주민, 학계전문가, 행정의 하나가 되어 함께 고민하고 그에 따르는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전 주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가운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 생각한다. /강원도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sumchoi@netsgo.com

용호리는 새농촌건설운동 상(賞)사업비를 받은 후 주민간의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였으나 마을 발전의 장기적 전망 아래 상사업비를

마을 공동 산 구입, 마을 장학재단 설립, 마을 공동 사업과 도·농교류 사업을 위한 폐교 인수 등을 하면서 새농촌 건설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마을의 경우 모범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마을의 경우 마을 홈페이지 구축, 도·농교류사업의 추진, 땅 살리기를 위한 퇴비생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상사업비를 받았지만 상사업비의 사용처를 놓고 주민간의 의견대립으로 후속사업의 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마을 주민 중 소수에 의해 추진되거나 상사업비를 타기 위한 목적으로 새농촌 건설운동을 추진한 경우는 상사업비를 받으면 받은 대로,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한 대로 문제가 되었다. 전자의 경우 상사업비의 사용방법을 놓고 주민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는 예가 다수이고 후자의 경우 새농촌건설운동을 지속할 동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사업비는 새농촌건설운동의 지속과 모범을 만들기 위해 주민 공동사업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상사업비를 개인별로 나누거나 관광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노령화가 극도로 진행된 농촌에서 장학재단의 설립은 수혜자가 없어서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설령 수혜자가 있다 하더라도 소수 청장년에게 수혜가 편중되어 노령층이 반발하여 장학재단이 마을 공동사업으로 채택되지 못한 예도 있다. 농가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공동사업의 경우, 수입개방과 그로 인한 농축산물의 가격실현에 대한 전망이 부재하여 농민들이 사업추진 자체를 피하고 있다.

새농촌 추진 운동의 경우 공통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마을 홈페이지 구축과 주민의 이-메일 갖기 등 정보화 사업, 농촌체험과 도·농교류 등 문화관광사업, 유기농업과 퇴비 생산과 같은 친환경농업 등이다. 그 중에 문화관광사업과 친환경농업의 경우 강원도 농정의 주요 목표이고 그 추진이 정책수단을 전 지역에 포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닌 선별적 사후 지원으로 지역간의 경쟁을 부추겨서 새

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상사업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역의 실정을 도외시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모아내지 못하며 관계 공무원까지 성과에 급급하여 무리를 하게 한다. 새농촌건설운동의 과제가 그 마을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는 판단은 그 사업의 지속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상사업비 수령 이후 새농촌건설운동이 중단된다면 이미 그 마을에서 새농촌건설의 필요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상사업비에 관계없이 마을 주민이 그 사업을 계속한다면 그 사업은 마을과 주민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새농촌건설운동의 추진은 주민 합의에 의해야 하고 보다 장기적인 전망 아래 마을에 맞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그 과정에서 주민의 의식을 고양되며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여 주민의 단합과 성과의 고른 향유를 가능하게 한다. 상사업비를 경쟁을 통해 한 마을에 주는 것은 경쟁에서 도태된 많은 마을에게 사업추진의 기회 자체를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처를 제한하여 사업추진비로 각 각의 마을에 나누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농어촌 정보화 사업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구의 집중력 저하로 정보화에 뒤쳐질 수밖에 없는 농촌에 기회의 부여라는 측면에서 새농촌건설운동에 관계없이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새농촌건설운동에 선택적으로 집중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친환경농업의 경우 오히려 우리 농업의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전망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먼저이고 그 결과로써 친환경농업이 정책의 목표가 되었을 때 권장해야 할 것이지 정책적 지원이나 기반의 조성이 없는 상태에서 생산 이후 판로가 막혀 한 차례 시도해 보는 것으로 끝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농민의 희망을 꺾는 일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던 관제농촌운동을 해 본 경험이 있다. 새마을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새농촌건설운동의 종말이, 새마을운동에 나섰던 농

민의 손에 의해 새마을 간판이 불타는 그런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새농촌건설운동이 새마을운동과 달라서가 아니라 농민의 의식수준이 국가에 의한,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한 강제를 용납하지 않을 만큼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기실, 새마을운동은 월남전 특수 이후 내수 시장 진작을 위해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된 측면을 띠고 있다. 농어촌 전화(電化)사업으로 가전제품이, 농어촌 취락개선사업으로 월남 특수 이후 시장을 찾지 못하던 건설 자재시장이 농촌에서 시장을 확보했다.

지금의 새농촌건설운동이 전자정보산업의 국내의 남은 미개척시장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자본의 의도가 관철되고 있고 문화 관광산업도 높은 부가가치로 자본의 구미에 당기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마냥 새농촌건설운동을 사시적(斜視的)로 볼 것인가는 다른 문제이다. 마땅히 새농촌건설운동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비판하여 고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농업전망의 부재로 활력을 잃어 가는 농촌에 전망과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결코 가벼이 할 일이 아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은 농촌운동에 대한 원칙과 주민으로써 농민의 이해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환경농업을 포함하여 우리 농업에서 대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의 문제, 농촌운동으로써 새농촌건설운동을 농촌주민이 어떻게 자주적으로 추진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집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없이 상사업비를 목적으로 하는 새농촌건설운동은 로또와 무엇이 다르랴?